

<2012년 4월 10일 화요일 새벽 잠언>

* <주 계시> – 이번 주에는 총 147개의 주님 계시 잠언이 일주일 동안 이어서 전해집니다.

* 147개로 쭉 이어서 주님이 주신 잠언은 한 맥으로 쭉 이어지니, 147개를 한 번에 봐야 가장 잘 이해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새벽은 시간의 제약이 있어 흐름에 따라 하루 분량에 맞게 끊어서 전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흐름상 42번까지 끊어 줘야 가장 잘 이해가 되니, 42개로 끊어서 보냅니다. 고로 오늘 준비된 예수님 계시의 말씀은 다음 주에 전해 주고, 오늘은 42개의 잠언을 뜨겁게 전해 주기 바랍니다. 주 계시 중요한 잠언입니다.

1. 세상에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사는 목적을 잘 먹고 잘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좋은 집을 얻는 것에 두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신을 믿게 하시는 목적은 오직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다. 구원은 오직 사랑이다. ‘사랑’이 주님 앞에 최고의 재물이요, 영화요, 권세요, 좋은 집이요, 유산이다.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천국에 가기 때문이다.

2. 주님은 오히려 세상 부귀영화를 버리게 하시며 천국을 위해 ‘사랑’으로 부귀영화를 대신하라고 말씀하신다.

3. 주님의 사랑을 최고 유산으로 삼고 사는 자는 그 삶이 희망의 삶이 되었다.

4. 돈을 벌어도 세상 어떤 것을 얻어도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지, 혹은 자기를 위해 살려고 하는지에 따라 그 삶이 다르다.

5. 돈과 물질을 가까이할수록 구원과 멀어지고, 주님의 사랑과도 멀어지고, 주님과도 멀어진다. (순간 끝나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등지지 말아라.)

6.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의 삶을 자기 재산으로 얻을 때, 주님은 그 안에서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신다.

7. 절대 주님의 것이 되기 위해 주님께 투자해 보라.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의 것과 주님의 것이 아닌 것에 대한 생각이 다르시다. 주님의 것이 되면 주님이 온전히 함께하신다.

8. 주님과 사랑의 온전히 회복하여라. 그렇지 않고 행하면 사탄이 다가지고 간다.

9. 주님을 전체 공동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너 개인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라. 조건을 세우는 대로 자기 개인의 것이 되는 주님이시다.

10. 주님을 신랑으로 삼고 살아 보지 않은 자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

11. 세상 남녀 이성의 사랑으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 주님과 같이 사랑하고 주님과 같이 살아 봐야 근본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 사랑은 말로는 설명이 안 되고 표현이 안 된다. 해 봐야 된다.

12. 세상 사랑은 생활로 느끼고, 심정으로 느끼고, 몸으로 느낀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영'으로 보고 느끼는 사랑으로서 가장 온전하고 근본된 사랑이다.

13. 세상 사랑으로 천국을 느끼고 주님을 느끼는가?

14. 세상 사랑은 겉 사랑이고, 주님 사랑은 속 사랑이다.

15. 세상 사랑은 일순간의 사랑이라 불안하고 허무하다. 주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16. 주님은 이렇게 사랑하신다. 주님의 눈에는 사랑하는 자만 보이고, 오직 그만 사랑하신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자들이 세상만 쳐다보며 미친 사람처럼 온갖 것을 보는 대로 행하며 산다.

17. (주 편) 네 눈에 내가 보이게 나타나야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겠느냐. 또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해 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겠느냐. 내가 네 눈에 안 보여도,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안 해 줘도 나 예수가 너를 늘 보호하고 죽을 위기에서 살려 주어 지금 네 육이 죽어 흠이 되지 않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또한 네 영혼이 사망권에 거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이 사랑이다. 내가 너를 100% 사랑하니 너도 나를 100% 사랑하며 살아 보아라.

18. (주 편) 나 예수는 영이라 너희 육의 눈에는 안 보이니, 너희가 늘 보는 나의 육을 세워 그를 통해 역사한다. 그런데 너희가 나의 육과도 일체 되지 않으니 나 예수를 못 본다. 나의 육과 일체 된 자는 나 예수를 온전히 알고 나와 일체 된다.

19. (주 편) 나의 육과 일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자가 되어 사탄이 힐문하고 괴롭히고 공격한다.

20. (주 편) 나의 육을 제대로 모르니 나 예수를 제대로 모른다.

21. (주 편) 너희 선생이 세운 자를 제대로 안 따르면 너희 선생과 가깝겠느냐.

22. (주 편) 너희가 나의 육과 일체 되면, 사탄이 너희도 너희 선생도 묻고 늘어지지 않는다.

23. (주 편) 너희가 선생과 일체 되면, 사탄이 너희를 이용해서 선생을 묻고 늘어지지 않는다.

24. (주 편) 너 혼자 가면 반드시 영적 강도인 사탄을 만난다. 그리고 사탄이 너희를 사망으로 끌고 간다.

25. (주 편) 사탄은 너희를 엮으려고 수백 가지 생활의 올무를 너희 앞에 놓는다.

26. (주 편) 나의 육과 일체 되면 나 예수와 일체 되어 사탄이 놓은 올무길에 해당되지 않는 길로 간다.

27. (주 편) 나 예수의 말대로 하여라.

28. (주 편) 매일 차에 기름을 넣지 않으면 차를 쓰지 못하는 것과 같이 네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활동을 못 한다.

29. (주 편) 성자 나 예수가 안 보이듯이 네 영도 안 보인다고 관심 없이 살지 말고 막 살지 말아라. 그러면 영혼이 멸망한다.

30. (주 편) 나는 만왕의 왕이요 전능자로서 너희 각자를 위해 애태우는

데, 너희는 태평하게 사는구나.

31. (주 편) 오늘 나 예수가 재림한다면 “자신 있다. 나는 100% 했다.” 하는 자 안에서만 영 휴거가 가능하다. 이것은 답안지다.

32. (주 편) 이 주일에 나 예수가 재림한다고 생각하며 정신 차리고 영과 육의 온전치 못한 것들을 다 고쳐라. 그래야 변화된다.

33. (주 편) 이 시대 나의 육이 되는 중심자는 항상 “오늘로서 삶이 끝난다.” 생각하면서 자기 할 일을 그날 다 끝내고 살아왔다.

34. (주 편) 사람들은 세상에서 잠깐 살기 위해서는 온종일, 1년 내내, 평생 동안 몸부림치면서 산다. 그러나 영원히 사는 영을 위해서는 자기 감정에 의해 일순간씩만 투자하며 사니, 결국 그 영이 어디로 가서 살겠느냐.

35. (주 편) 집에 불이 났는데 잠자는 자는 보는 자의 속을 태운다. 이 시대 신앙인들이 그러하다.

36. (주 편) 매일 밥 먹고 자듯이 네 영혼을 위해 매일 기도해 주지 않으면, 사탄이 네 영혼을 이기게 되어 더 이상 생명권에서 존재하지 못한다.

37. (주 편) 선생 기도할 때 같이 해야지, 이때 못 하고 나중에 자기 혼자 하는 것은 조건을 세워도 헛수고다.

38. (주 편) 무거운 짐은 다 같이 들 때 들어야지, 혼자서는 옮기지 못한다. 이와 같이 기도도 선생과 너희가 일심해서 같이 해야 된다. 나의 육과 같이 일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시간에 나 예수가 함께한다는 것이

다.

39. (주 편) 기도하는 자만 나를 느껴 보고, 영의 눈으로도 보게 된다.

40. (주 편) 기도해야 이해된다.

41. (주 편) 기도해야 변화되어 그 위치에서 떠나 더 차원 높은 세계로 가게 된다.

42. (주 편) 기도하면 사람을 통해서 행하고, 너 자신의 마음과 몸을 통해서 행하는 사탄의 그 괴이하고 야비한 술법을 알 것이다.